

“강금원, 386 인사 다수에 돈 줬다”

檢, 안희정·윤태영·여택수 등에 수천만원~10억 유입 확인

강금원(사진) 회장의 돈이 참여정부 시절 핵심인사 다수에게 전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.



이들이 꼽힌다. 여기에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연구소와 명계남(57) 전 노사모 대표도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

후보시절부터 수행비서였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한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에게도 전달됐다.

돈을 받은 이들은 한결같이 “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순수하게 강 회장의 도움을 받은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”고 입을 모았다. 윤 전 대변인은 “강 회장 평전을 쓰기로 계약하고 받은 돈일 뿐 직무 대가성은 전혀 없다”며 “강 회장과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한 자료 등을 근거로 지난해 중반부터 글을 쓰고 있다”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안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“추정금 납부를 위해 1억원의 도움을 받았고, 그밖에 회사 사외이사로서 급여와 전세금을 융통했다”며 “새로 이사 갈 집은 구해 있는데 원래 살던 집이 나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강 회장의 돈을 일시사용했다가 언제나 다시 돌려드

렸다”고 밝혔다.

여 전 행정관은 “정치자금법 위반죄로 2004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강 회장이 생활비를 도와주거나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”이라며 “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할 수 없다”고 주장했다. 강 회장이 참여정부 386 인사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수천만~수억원을 빌려줬다는 얘기다.

검찰은 강 회장이 박연차 회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, 강 회장의 통 큰 선심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. 대전지검 관계자는 “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”며 “돈이 건네진 경위와 목적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불법성이 드러나면 돈을 받은 인사들을 사법처리할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

/*박지경기자 jkpark@연합뉴스

盧 600만불, 박연차 편의 대가?

檢, 휴켄스 인수·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사례금 판단

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600만달러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 돈이 박 회장의 사업 편의를 봐준 대에 대한 답례의 성격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.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박 회장이 문어발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600만달러의 성격에 주목하는 의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.

14일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사업 확장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협의 알짜 자회사였던 휴켄스 인수와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들 수 있다. 박 회장은 2006년 6월 더 높은 입찰 금액을 제시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정밀화학업체인 휴켄

스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.

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예초 계약보다 322억원이 줄어든 금액에 농협이 보유한 휴켄스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했고, 이 때문에 ‘월급인수’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.

2006년에는 태광실업 계열사인 태광비나와 휴켄스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3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냈다. 발전소 건설 경험이 전무한 태광비나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참여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.

박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 의심스러운 주식매매 등으로도 수백억원을 벌어들였다.

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기 전

인 2005년 6월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해 259억원의 차익을 남긴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.

2004년 6월에는 태광실업의 계열사인 정산개발이 경남 진해의 옛 동방유류 공장부지를 사들인 직후 고도제한이 완화돼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.

이 땅은 다시 박 회장의 계열사인 DNS로 넘어갔고, DNS는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300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.

2007년에는 무산되긴 했지만 박 회장이 중심이 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됐다.

박 회장은 또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다녀왔고, 2004년 10월에는 노 전 대통령의 인도-베트남 순방에도 동행한 바 있다.

檢, 盧 전 대통령 공개 소환할 듯

이르면 다음주 초 조사

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6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은 일리야 다음 주 초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.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임박한 가운데 소환시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. 흥남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4일 “500만 달러 부분에 대해 아직 조사할 게 남아 있고 권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사과문 내용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”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나 방법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.

지난 주말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를 전격 소환조사하는 등 발빠르게 수사해오던 검찰은 500만 달러의 흐

름 등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됐던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은 일리야 다음 주 초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.

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 만큼 공식적으로 소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, 내부적으로는 소환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검찰은 대개 혐의가 있는 피의자나 조사 대상이 되는 참고인이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이 언론에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공개 소환은 하지 않아 왔다.

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인 ‘전직 대통령’의 신분인데다

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의 ‘핵심 인물’이란 점에서 공개 소환될 것만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.

특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면 승부를 벌이는 노 전 대통령의 기질을 감안할 때 오히려 그가 스스로 검찰에 소환될 때 불응하마 입구에서부터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.

검찰에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됐다.

노태우 전 대통령은 공개 소환돼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“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”라고 말한 바 있다.

/*연합뉴스



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후 김해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인쇄된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.

/*연합뉴스

“채무변제 했나 아들에 전달 했나”

100만불 행방 관심

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100만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.

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를 잇따라 조사하면서 100만 달러의 ‘행방’이 관심사다. 박 회장이 이틀째 급하게 환전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한 ‘100달러 100장 100류음’의 100만 달러가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이후엔 자취를 감춘 셈이어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

우선 권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“박 회장이 100만 달러를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”고 진술했다. 그러나 누구에게 얼마나 진 빚인지의 밝혀지지 않아 오히려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.

노 전 대통령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차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채무변제용으로 빌린 돈이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지는 않았다. 이 때문에 100만 달러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아들 건호 씨에게로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

있었다. 채무 변제용이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돈이라면 달러로 받을 이유가 없는 데 박 회장이 원화 100억원을 구태여 달러로 환전해 보낸 점으로 미뤄보면 미화가 필요했던 숨은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.

돈을 받은 시점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. 100만 달러를 건네받은 다음날인 2007년 6월30일 노 전 대통령 내외가 과테말라로 해외 순방에 나서 중경유치 미국 시애틀에서 하루 정도를 머물렀다는 사실 때문이다.

검찰은 박 회장이 100만 달러를 건넬 때 회사 임직 등 130명을 동원해 이를 만에 신속하게 환전한 이유는 ‘받는 쪽의 요청 때문이었을 것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0만 달러가 든 돈 가방도 순방길에 ‘동행’ 했을 것으로 보고 노 전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 중이다.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내외가 시애틀을 경유할 당시 시애틀 총영사였던 권찬호 씨를 소환하는 등 100만 달러의 전달 과정에 개입했을 여지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.

/*연합뉴스

전국 최고의 교수진, 합격 보장! 전문 시스템, 원장 안명섭

경 찰

수시접수중 (종합 및 문제풀이)

※합격시스템

6개월과정	1년과정	순경공채	특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수강료 25% D/C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영어 기본이 인된 수강생 한함 수강료 50% D/C, 교재 25% D/C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남·1차: 968명, 2차: 214명 여·1차: 40명, 2차: 47명 101단·1차: 120명, 2차: 120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경 특채 240명 경찰행정학과 특채 100명 경찰특공대 특채 38명

※ 종합 1개월: 16만원 · 문제풀이 1개월: 13만원 · 단과: 9만원

경 찰 전문 **메가경찰학원** www.gmega.co.kr 226-5050

전남여고 후문 학원가

= 48년의 전통! 오랜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다! =

7.9급 공무원 전직력

을 적중문제풀이 4주 정형무채사원총합정호전호지방술

시험입정 및 채용인원

- 인원: 국경의 9명, 2차: 7명, 3차: 9명, 4차: 9명
- 시험일: 지방의 9월 23일, 24일, 25일, 26일, 27일

개강 4월 15일 (주·야·월·화·목·토·일)

본 학원 강의 과목

- 국어, 영어, 한국사, 행정법, 행정학, 교육학, 세법, 회계학, 헌법, 형사법, 교정교원 헌법, 국사학, 민사법, 소방법, 토건법, 상식, 기차

= 주간반 2개월, 야간반 3개월 완성 =

무등고시학원 www.mdgosi.co.kr 222-4560

강주동부서 뒤 (중원초교 후문앞)

직장인, 주부, 학생을 위한

공인중개사

주말반 국비 환급 100%

개강 주말반 4월 18일(토)

- 합격률 100% 책임 지도 관리
- 출석부 관리, 숙제, 쪽지 시험 시행
- 박문각 교재, 동영상 30% DC
- 기술문제 풀이(수요발급법, 목요일개론, 오후 3시~5시)

성무지구에서 자동차로 5분거리

본원만의 합격비법 전수

공인중개사전문학원 전국 최다, 최고의 합격생 배출한 서울 박문각 합격 시스템(실강의)으로 운영

062)529-8838

위치: 문암동 경암고교 옆 상해빌딩 2층

한라기술의 공기열보일러를 설치하시면?

전기1+공기중 열에너지2+열에너지3

- 병커 C유 대비 70%
- 도시가스 대비 65% 절감
- 전기보일러 대비 3배의 효율
- 한 대의 기계로 냉방, 난방, 온수까지 3배의 효과

◆ 생산공장, 대중탕, 호텔, 병원, 복지시설, 식당 등 * 전국 시,군 대역점 및 딜러 모집합니다.

인리웰스텍(주) 특판사업부 063)838-2231, 010-6794-0094

광주 동구 대리점 062)225-2137